

『농민예언자 김영원의 들소리』

박 동 현(교수, 장신대)

1. “신앙은 삶이다. 삶은 운동이다. 운동은 생명 있는 존재의 본능적인 동작이다”(165쪽, 이하 숫자는 이 책의 쪽수를 가리킴), “교회가 농촌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실체가 될 수 있을까?”(169쪽) - 이처럼 짙막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말들로써 “한 평생을 땅에 뿌리내려 생명을 기르고 가꾸어 온 이 시대의 참 농사꾼”이요 ‘생명 운동가’(저자의 또 다른 책, 『눈뜬 장님 밥상』 [서울: 소나무, 2002]에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이 쓴 머리말, “참 농부가 참 세상을 만든다”, 가운데 7쪽)인 저자는 지난 일흔 해를 한반도에서 농사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온 삶의 고백을 털어놓는다. 삶의 고백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 고백은 그냥 흔 잣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 소리를 듣는 독자들도 그 소리에 응답하도록 초청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지금이라도 바른 삶을 살라고 촉구한다.

2. 13대 째 농사를 지어오던 집안에서 태어난 저자는 외조부 이후

5대째 예수를 믿어온 가정에서 자라나, 나이 서른 셋에 경상북도 의성군의 효선교회 장로가 되어 30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다. 1978년 농사짓다가 농약 중독을 경험한 뒤 유기농업으로 농사 방식을 바꾸면서 유기농의 대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연합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감동을 받고 농민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사회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16년 전부터 앓고 있는 파킨슨씨 병이 심해지자 저자는 이제 농사일은 만아들에게 넘겨주고 한 평생 살아온 바를 글로 남기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있다.

3. 이 책에서 저자는 그저 농민, 농촌, 농업만 살리자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기아의 시대를 코 앞에 둔 오늘의 교회와 세계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천시함으로써 파멸의 문턱에 들어서 있음을 개탄한다. 돈이 하나님이 된 이 시대의 위기는 가치의 위기로, 문화의 위기이고, 이를 이겨낼 대안 문화로 농민 문화를 주창한다.

이 책은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농부의 고백', '암울했던 시대의 편지와 이야기들', '농부의 강화(講話)', '기고문', '살며 생각하며'의 다섯 부분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고, 작가는 모두 예순 다섯 편의 짧거나 긴 글이 이 책에 들어 있다. 그 대부분은 이미 다른 데서 말이나 글로 발표했던 것이지만, 더러는 이 책을 위해 새롭게 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이 책에서 독자들은 저자가 한평생 이런저런 사회 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난다. 저자가 속한 교단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여러 다른 교단, 천주교, 불교계 사람들도 만난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신학생들도 만난다. 저자의 동년배뿐만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고민하여 살았던 젊은이들도 만난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난다.

이를테면,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온 농부의 고백'(23-85쪽)에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톨릭 농민 목회자 정호경 신부를 비롯하여 기독교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배종열, 김성순, 최병상 장로, 심상봉 목사, 윤기현, 김종길, 1980년 초 당시 기독교청년활동을 참여했던 김의기, 권오혁, 안기석, 오혜옥, 기독교 농민회 활동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했던 박형규, 전덕열 목사, 성주초천성당 주임신부, 오재식, 권정생 선생, 안동 마리스타 수도원의 마누엘 수사, 정종희 오재길 선생, 최경수 장로, 김수환 추기경, 원불교 정성길 교무, 저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판화가 이철수, 사회운동가 손호만 등의 인물들을 만나게 해 준다. 특히 1980년 5월 30일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남긴 채 기독교 회관에서 떨어져 죽은 김의기(사인 불명)의 편지글은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91년 한 해만 해도 백 번 이상 대중을 앞에 놓고 말할 기회가 있었던 저자가 겸손히 '농부의 강화'라는 소제목 아래 묶어 놓은 열두 편의 글을 통해서 독자들은 저자가 지난 이십여 년 간 다양한 계층의 청중들을 만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의과대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 농촌 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개신교 일반 목회자들, 평신도들, 노동선교회 세미나 참석자들, 일본 애농회와 한국 정농회 연수회 참석자들,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들이 그들이다.

더 나아가서, 저자가 직접 인용하거나 참고한 글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농업, 경제, 역사, 의학, 사회 사상, 시, 소설 등 여러 분야의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을 만난다. 김진홍(149, 『역사를 만드는 교회』), 유인호(156, 『식민지 경제의 민중경제』), 이현주(111, 272), 박남식(276), 허춘순(276), 송건호(156, 『현대사론』), 이태(175, 『남부군』), 임종국(242), 조지훈(363, 농민송), 증산(283), 무위당 장일순(337), 공자(243), 노자(138-139), 사마천(242), 야나세기료(91, 『생명의 의, 생명의 농』), 가꾸나가

(93), 홍일선(99, 『농토의 역사』), 고오다 미쓰오(343), 쓰지다 다카시(108, 227, 『공업사회의 붕괴』), 쓰지다 아쓰시(228, 『석유문명의 다음에는 무엇인가?』), 야스다 시게루(175, 250-60, 301), 이누마지로(266-7, 280), 후지하라(281), 히다(249, 281, 『항일농민운동연구』), 레스다 브라운(230), 칼 브레이드(299), 루소(321), 루터(111), 리카르도(127), 칼 마르크스(133), 멜더스(127), 슈마허(177, 235), 아담 스미스(133, 『국부론』), 스캇치(320), 찰스 아빌라(306), 어덤(226), 크라크(243), 헨리 스킨모비치(5, 『프란치스코의 도전』), 카레스키(360,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저자가 책을 통해서나 직접 만난 사람들이 동서고금 여러 계층에 걸쳐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특히 자주 등장하는 일본 사람들의 글과 이야기는 서구 지향의 교육을 받은 해방 후 세대에게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준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각종 통계와 최근 국내외 시사 자료도 접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련이 무너진 뒤 유기농업을 통한 농업 혁명으로 식량 자립에 이른 쿠바에 대한 소개(210-212)는 주의 깊게 읽어볼 만하다.

5. ‘밭간에 부쳐’(7-8)를 쓴 한경호 목사는 저자를 가리켜 ‘이 시대의 아모스’(7)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자는 이 책에서 예언자 정신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다.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농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농민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위기를 갈파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스스로 그 대책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언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농민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면서 저자는 그 첫 머리에 예언자적인 안목과 예언적 삶에 대해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예언자적 안목은 “어떠한 특별한 영감이나 계시가 아니

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으로써 이는 곧 "매의 눈과 같이 전체를 관조하여 구조적 모순을 볼 수 있는 안목"이고, 예언자적 삶은 "다가올 미래를 오늘에 앞당겨 사는 것"이다(226). 바로 이런 안목으로 저자는 오늘 농촌과 농민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한편으로는 한국 농촌 사회의 역사를 짚어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의 패권주의의 비인간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문명의 위기, 가치의 위기라는 큰 틀에서 이해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자는 이런 위기를 유기농업을 중심한 농업의 복원으로 극복하려고 그동안 해 온 자신의 경험을 토로한다.

이리하여, 저자에게 예언자직은 더 이상 전문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직책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좇아 살고 있는 평신도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렇게 볼 때,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술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제쳐놓고 농민 평신도 아모스를 예언자로 불러 쓰신 하나님이 오늘 저자를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르셨다고 할 만하다. 아모스서의 내용으로 볼 때 아모스는 그저 무식하고 가난한 농사꾼이 아니라 당시 국제 정세에도 밝은, 상당한 식견을 지닌, 이른바 의식 있는 농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교회사를 포함한 역사와 국제 정세에 대한 저자의 깊고 넓은 이해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정보와 지식을 저자는 한편으로는 농민의 입장에서 읽은 신구약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경험한 한반도의 농사 경험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머리와 입으로만 일하는 교역자들이나 학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해 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잘못된 세상의 흐름으로 뒤쫓아가기만 하는 교회와 신학과 그 지도자들이 우리 겨레의 역사에, 특히 농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온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이를테면, 저자는 "보리 한 톨 없는 상황 속에서 20여 개 성상을 아

무런 문제의식도 생각도 없이”(331) 맥추감사절을 지켜오고, “풍년을 만든 주역인 농민은 허탈상태에서 좌절하고 있는데”(100) 이들을 제쳐놓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탄식한다. 이밖에도 저자는 십일조, 복, 토착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밝힌다. 다른 한편으로 저자는 우리 현실을 무시한 농정 입안자들과 학자들의 오만과 무지를 질타한다. 이를테면, 미국식 기업농보다는 아시아식 유기농, 특히 우리 전통을 따라 증산간 농지를 살리는 가족농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6.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는 저자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슬픈 표현과 저자 특유의 개념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보기만 들어보자.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면 식민지(食民地) 백성이 된다”(122)고 하면서, 한자로 심을 식(植) 대신에 밥 식(食)으로 쓰는 것,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으므로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의인(義人)은 의인(意人)일 수도 있다”(243)고 한다. “백성이란 백 가지 성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백 가지 작물을 재배한다는 뜻이 있다. 그리고 백성은 무엇이나 자기 손으로 만들어 쓰는 사람으로서 돈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150)라는 독창적인 풀이도 매우 인상적이다.

7. 이처럼 독자들은 다른 책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살아 있는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은 조금 아쉽다. 글을 연도별로 배열했다라면, 서로 관련되는 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저자가 앞장선 농민 운동이 시대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48쪽에서 간단히 적은 ‘난지도 쓰레기장에 팽개쳐진 농민들’은 102쪽에도 언급되는데, 이 둘을 나란히 두든지, 아니면 각주에서라도 두 글의 관련성을 밝혀 두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어떤 글은 분명히 이미 다른 데 발표한 것인데, 그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주의 깊은 독자들에게는 그 글이 생겨난 상황과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쿠바에 대한 부분과 아미쉬 공동체의 삶과 교육(291-295)에 대해 소개한 내용도 그러하다.

8. 두 사람의 프랑스 농민 운동가, 조제 보베와 프랑수아 뒤푸르의 책,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서울: 울력, 2002)를 우리말로 옮긴 홍세화가 그 책의 머리말(6쪽)에서 주장하듯이 “농촌을 살리고 식량 주권을 획득하는 데에는 농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가 농업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제 농민 예언자 김영원의 들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농사를 짓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함께 힘을 모아 농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라!